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국 배재대 교수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역주의이다. 지역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자칫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걸맞은 정당한 지역 이익 추구나 지역 정체성 강화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일단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보다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추구하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과거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시절에 억눌려 있던 당연한 욕망이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보편적

지역주의, 지역 이익, 그리고 지역 정체성

인 현상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소위 지역이기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기 지역 이익 추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과도한 중앙집권적 발상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자부심을 느끼고 애항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강력한 지역 정체성이 지역주의의 원인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사실 '지역주의'라는 표현 그 자체는 아무런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동안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초기 지역주의는 특정 지도자와 특정 지역과의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내세우는 부작용을 유발했다. 게다가 이러한 지역주의에 비해 견할 수 있는 다른 사회 갈등 구조가 표출되지 못하여, 지역 갈등만이 한국 사회의 유일한 갈등인 것처럼 비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주의의 정서적 측면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그 대신 지역의 이익과 발전이라는 공리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외에

도 이념이나 세대, 계급과 같은 다른 것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해지면서, 지역주의가 한국정치에서 가지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됐다.

이제는 국민들이 단지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념적 성향, 자기가 속한 세대의 가치관, 자기가 속한 단체와 계급의 이익 등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주의는 내용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승자 독식을 기본으로 하는 한국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로 인해 이러한 지역주의 현상이 선거 결과에서 과장·확대되어 나타날 뿐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20~30%의 지지를 받아도 한 지역구에서 1등을 하지 못하면, 이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것이다. 선거제도만 개혁해도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독점적 지역정당 구조는 사라질 것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의 설립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정당이 지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자기 이익 추구가 당연한 일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지역정당의 출현이 일부 지역에서 정

당 경쟁을 오히려 활성화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중앙 중심의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의 설립을 용이하게 해줘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자기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면, 이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것이다. 선거제도만 개혁해도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독점적 지역정당 구조는 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식 상원제 도입이나 권역별 혹은 시도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면, 이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것이다. 선거제도만 개혁해도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독점적 지역정당 구조는 사라질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명제가 됐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과 지방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한 자신의 특성과 장점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기고

'2015광주국제아트페어' 개막에 부쳐



전윤철 (재)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이웃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국제 규모의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아트페어로 빠르게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가을의 초입에 열리는 이번 아트페어에 이어 이달 중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고 다음달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개막하면 예향 광주는 들뜬 바이샬과 함께 문화예술의 결실을 한껏 거두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풍요로운 수확의 가을을 구가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시가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다져가고 있는 이때,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의 지원에 더해 민간 차원의 문화 예술 중흥 노력을 더욱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광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메세나 운동의 본격적인 시동과 확산이 절실합니다.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의미하는 메세나는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문화예술계에 엄청난 격려가 됨은 물론이고, 기업 쪽에도 지명도 향상 및 이미지 제고라는 고차원적인 효과를 발휘할

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4년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결성돼 활발한 활동을 펴오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고대 로마 제국 이래 수많은 제국이 출현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이 보면 예향 광주의 성립 조건은 첫째가 군사적이고 둘째가 경제력이지만,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셋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력입니다. 비근한 예로서, 고대 한나라 성립 이후 수많은 북방민족이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중원을 침범하였지만, 하나같이 중국의 주류 민족인 한족의 우월한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에 들어 한 국가의 문화력은 '소프트파워'라는 학술 용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어를 매력력이라고 풀이하여 그 중심에 문화 예술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경상남북도도 합친 것보다 조금 좁은 국토에 인구가 800만 명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첨단기술 밀집도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만약 앞으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광주광역시와 문화 예술 밀집도를 조사하면 놀랄만큼 높은 수치가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이런 문화적 특성은 메세나의 손길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인들께서는 메세나 운동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맡아주시고, 정치인들께서는 미술을 비롯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정책 수립과 추진을 가속화해주시길 기대하며 요청합니다.

기업인과 정치인이 양대 파트너가 되어 광주문화예술계를 격려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면 광주는 놀랄 만큼 이른 시기에 세계에서 주목받는 문화예술발신지로 자리를 굳힐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2015광주국제아트페어'의 개막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온 광주국제아트페어가 올해 행사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료칼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진화-최소절개 수술법



정재훈 세계로병원 원장

고 있다. 바로 최소 절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다.

이중 전통적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약 12~15cm 정도 절개해서 수술을 한다. 피부절개를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시원하게 보이게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대한 손상도 그만큼 커진다. 당연히 수술 후 완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환자의 불편도 크다.

반면, 최소 절개 무릎 인공관절 수술법은 약 7~9cm의 피부 절개를 통해 수술을 한다. 한꺼번에 관절 전체가 보이게 해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수술할 부위만 보이게 해서 수술을 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피부를 조금만 절개해서 수술을 할 수 있고,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왜 최소절개법으로 진화했을까? 당연히 환자들에게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최소 절개 수술

법의 장점은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사실에서 나온다. 피부절개가 작다는 것과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수술 상처가 작으니 미관상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작은 수술처럼 보여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된다. 주변조직 손상이 적기 때문에 수술 후 부종이나 통증이 적어 회복이 빠르고 재활이 수월하다. 특히 상술개념을 보존하며 수술하기 때문에 유착이 적어 수술 후 관절운동이 잘 된다.

그러나 환자에게 편하고 좋은 수술이지만 최소 절개 무릎 인공관절수술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수술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작은 절개로 수술을 하다 보니 필요한 만큼 수술 대상 부위를 노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좁은 공간을 통해 수술을 정확히 하기도 쉽지 않아 수술하는 의사에게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좋은 좋은 점이지만 시도를 못하거나 시작했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들에게는 최소절개 무릎 인공관절 수술법이 확실한 유익한 수술법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어려워져 시행하지 않게 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큰 불편일 뿐만 아니라 의료 발전면에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최소절개 무릎 인공관절은 어려워져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는 최근 2015년 3월까지 2596건을 집도해 국내 최다기록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됐고, 세계기네스북에도 선정 중이다. 많은 경험 후에 내린 결론이 이것이다. 최소절개 무릎 인공관절을 많은 의사가 습득해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좋은 것은 널리 보급해야 세상에 이롭다. 최소절개법도 널리 보급돼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한 단계 진화된 수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社說

빛투성이 공기업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지방공기업 부실 방만 운영의 폐단은 누차 지적됐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다. 빛 자체만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곳도 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자치단체 살림을 파탄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 등을 보면 광주·전남 대표 공기업의 재정은 매우 위태롭다. 광주도시공사 6185억 원, 전남개발공사 6259억 원, 광주도시철도공사 305억 원 등 3개 기관의 빚이 무려 1조 2749억 원에 이른다.

해마다 이자 내기도 벅차다. 전남개발공사는 2010년부터 5년간 1093억 원을 감당해야 했다. 광주도시공사는 5년간 242억 원의 이자를 냈다. 하루 평균 적자 1억 원이 넘는 광주도시철도공사도 같은 기간 83억 원을 이자로 지출했다. 주 공기업에서 지난 5년간 '시민 혈세'로 지출한 이자만 1400억 원에 이른 것이다.

주민의 공공복리와 지역 활성화를 명분으로 설립된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체 이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나 퇴직공무원, 특히 단체장의 선거를 도운 '낙하산 인사'들이 경영을 맡는 경우도 있어 손실을 부채질한다. 이들은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노리고 직원 봉급을 계속 올려 악성부채에 시달리기도 한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최근 공기업 구조개혁에 나섰다. 부채 최소화 유사 기관 통합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도 빛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스스로 노력과 함께 정부는 좀 더 강력한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책임자는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게 마다. 생산성이 저출한 이자만 1400억 원에 이른 것이다. 주민의 공공복리와 지역 활성화를 명분으로 설립된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공사 직영 체제로 무안공항 활성화해야

서남해안의 거점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속과 화물운반 등 지상에서 일하는 아시아나 항공의 인력이 부족해 24시간 운영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는 것이다. 무안공항은 인천·제주공항과 더불어 전국에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것이라는 장점이 있는 곳이지만 하지심한 인력 부족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무안공항에는 북경 주 2회, 상해 주 4회 등 3개 국제노선과 제주 등 1개 국내노선에 운항 중이다. 무안공항의 아웃바운드(무안공항 출발) 노선은 중국 연길, 베트남 다낭 등 4곳이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상 조업(操業)을 위탁받은 아시아나항공의 인력난으로 24시간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항공사 측이 KTX 개통으로 이용객들이 급감하자 최근 인력을 30명에서 16명으로 줄인 탓이다. 이 때문에

'24시간 공항'의 장점을 살려 새벽 시간 등을 이용해 관광상품을 기획한 여행사들만 난파를 보고 있다.

광주의 여행사는 최근 일본 기타큐슈 공항에서 무안공항으로 취항하려던 항공기 운항시간을 변경하면서 일본 파트너와 계약을 파기했다. 여행사 측은 10월 초부터 기타큐슈공항에서 전세기를 밤 11시 30분에 띄우고, 다음날 새벽 5시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는 상품을 판매하려 했으나 인력난에 따른 출발시간 변경으로 모든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무안공항은 시설에 비해 이용객이 적어 '반쪽 공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난이라는 내부 문제로 '24시간 공항'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는 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아시아나 항공은 하루빨리 조업 인력을 보강해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무안공항 조업을 직접할 필요도 있다.

無等鼓

대입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다. 대입 전형에 제출할 자기소개서 작성을 컨설팅해 주거나 아예 소개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사설학원들이다. 이들 학원이 대신 작성해 준 모범 답안을 사용한 수험생들이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대입에 제출된 자기소개서 7000여 건이 모범 답안을 베껴거나 모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입이 낡은 폐해 같지만 사실은 조선시대 과거 급

당수는 정해진 틀에서 규정된 답안 위주로 시험 준비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이는 석담서당에서 학생들에게 과문초집(科文抄集)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했으며, 먼저 소학과 근사록을 장려해 가르치고 점차 사서오경을 읽게 했다. 경학에 밝지 못하고 문리에 통달하지 못한 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실학자 이익은 "우리나라에는 과시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입이 낡은 폐해 같지만 사실은 조선시대 과거 급

모범답안

을 묶은 것은 과표(科標)라 했다. 우수 답안만을 따로 모은 선려(選擧)도 인 기였다.

한 틀이 있고, 글자마다 형식을 갖춘 다"며 과거의 폐단을 지적하고 정형화 제가 일성의 최고 목표였던 사대부들은 과거 시험용 기출 및 예상 문제집을 구하는 데 정성을 쏟았다. 과거시험 유형을 분석해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모아 놓은 책이 생겨났는데 이를 과문초집(科文抄集), 줄여서 초집이라고 했다. 이중 모범 시(詩)를 모아 놓은 것이 과시(科詩), 외교 문서인 표정(表箋)을 묶은 것은 과표(科標)라 했다. 우수 답안만을 따로 모은 선려(選擧)도 인 기였다.

물론 모든 과거준비생들이 이 같은 모범 답안만을 쫓지는 않았겠지만 상

된 답을 얹어지고 추정했다. 그는 또 이런 과거의 폐단 때문에 어린이 때부터 늘어 죽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구속받는다고 비판했다.

자극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수험생의 인성과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기소개서마저 정형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성장 과정과 인성 및 사고 스타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자기 소개서 모범답안을 읽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채희중 사회2부장 cha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text. English: The Kwangju Ilbo. Korean: 光州日報.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